

2018년 해외공장설립제도 및 산업집적 실태조사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 출장 목적

- 주요 선진국 산업집적화 정책과 지원제도 조사 및 분석
- 현지 산업단지 구축 및 지원관리 시스템 현황 파악을 통한 정책 시사점 도출의 계기 마련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주기업 지원제도 벤치마킹 및 기업 지원 실무 역량 향상

□ 출장 기간 : 2018. 6. 3(일) ~ 6. 11(월) (7박 9일)

□ 출 장 자 : 신성장산업과 건축7급 황인중

□ 출장 일정

일 정	일 정 내 용		비 고
	사전계획	실제 수행내용	
6. 3(일)	· 인천출발, 파리도착	· 인천출발, 파리도착	
6. 4(월)	· 바이오시테크 테크놀로지 파크 방문 · 프랑스 바이오산업 동향 및 행정지원 현황 토론회	· 바이오시테크 테크놀로지 파크 방문 · 프랑스 바이오산업 동향 및 행정지원 현황 토론회	
6. 5(화)	· Creative Valley (Station F) 방문 · 프랑스 창업기업 입지지원 시스템 현황 토론회	· Creative Valley (Station F) 방문 · 프랑스 창업기업 입지지원 시스템 현황 토론회	
6. 6(수)	· 브뤼셀에서 도르트문트로 이동 · 공식방문 기관 중간 디브리핑	· 브뤼셀에서 도르트문트로 이동 · 공식방문 기관 중간 디브리핑	
6. 7(목)	· 도르트문트 창조경제 유럽센터 방문 · 독일 루르지역 산단 개발 현황 토론회	· 도르트문트 창조경제 유럽센터 방문 · 독일 루르지역 산단 개발 현황 토론회	
6. 8(금)	· NRW州 경제개발공사 방문 · 뒤셀도르프에서 쾰른으로 이동	· NRW州 경제개발공사 방문 · 뒤셀도르프에서 쾰른으로 이동	
6. 9(토)	· 공식방문 최종 디브리핑 및 토론내용 종합정리 · 쾰른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이동	· 공식방문 최종 디브리핑 및 토론내용 종합정리 · 쾰른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이동	
6. 10(일)	· 독일 헤센州 산업 인프라 탐방 · 프랑크푸르트 출발	· 독일 헤센州 산업 인프라 탐방 · 프랑크푸르트 출발	
6. 11(월)	· 인천도착	· 인천도착	

□ 출장 수행 내용

○ 프랑스 바이오시테크 테크놀로지 파크 방문



<사진 1> 바이오시테크 테크놀로지 파크 방문 기념 촬영 장면

1. 기관개요

- 민간이 추진한 프랑스 파리 인근의 바이오 산업 특화단지로서 서울의 마곡 바이오클러스터 개발과 관련 2013년 MOU를 체결한 바 있음
- 파리 외곽 Romanville에 입지하고 있으며, 파리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개발 거점임과 동시에 프랑스 정부가 계획한 의약품 관련 클러스터 (헬스케어, 테라피 등)인 'Medicen Paris Region network'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6개 건물에서 28,250㎡의 오피스 및 연구소 임대공간이 제공되며, 현재 조성 후 5년만인 2008년에 80%의 입주율 달을 달성 했고 40,000㎡의 공간을 추가하는 확장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2. 발표내용

- 프랑스 바이오 테크놀로지 산업 일반 동향
 - 프랑스 바이오 테크놀로지 산업 부문의 다양성으로 인해 관련 총 기업 수의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바이오 테크놀로지 관련 경제 활동을 보고한 기업 수는 450개 이상임

- 특히 바이오 테크놀로지 산업 종사 기업들은 연구 개발로 인해 회사 설립 초기에는 매출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회사 설립 10년이 되어야 비로서 일정 정도의 매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 & D 투자 비율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바이오 테크놀로지 종사 기업의 총 매출액은 5억 5천 5백 1십 6만 9천 유로로, 총 매출액의 89.3 %가 10년 이상 이 분야 종사 기업이 올린 매출액이며 R&D 투자 총액은 1억 9천 4백 6십 1만 6천 유로로, 총 R & D 투자 비용의 70.3 %가 10년 이상이 분야 종사 기업이 투자한 금액임



<사진 2> 조사단 접견단의 브리핑 장면

- 프랑스 바이오 테크놀로지 산업 지원 정책

- 프랑스 정부에서는 ‘연구 방향 및 프로그램’ 관련 법 개정을 통하여 ‘국립 연구원’ 내, ‘생물 및 건강’ 분야를 강화하면서 지원금을 대폭 증가, 약 1억 1천만 유로를 투자·지원하였으며, 특히 바이오 테크놀로지 혁신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추세임
- 한편, 프랑스 내에는 FCPI (Fonds Communs de Placement pour l’Innovation, 혁신투자 공공 자본)과 FCPR (Fonds Communs de Placement à Risque, 위험 투자 공공자본)를 두고, 공공 자금 모금을 기술 개발을 통한 혁신적인 중소기업 지원하고 있음
- 프랑스 정부는 또한, 첨단 벤처 기업 육성 제도(JEI: Jeune Entreprise

Innovante)를 마련, 해당 기업들에게 3년간 수익 세금을 면제해 줌과 동시에 7년간 직업세와 토지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통해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총 매출의 15% 이상이 R & D에 투자될 경우, R & D 고용 인력에 대한 고용주 부담 사회 보장세를 감면해 주고 있음
- 이 때 절감된 비용은 R&D 인력 추가 고용, R&D 설비 구입 등으로 재투자되고 있음
- 프랑스 바이오 산업 지원 현황을 살펴 보면, 정부 지원이 1억 5백만 유로이며 민간 투자가 1억 6천 3백만 유로로 총 2억 6천 8백만 유로인데, 이는 연간 62 %가 증가한 추세의 결과물임

- 바이오시테크 테크놀로지 파크 소개

- 파리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개발 거점임과 동시에 프랑스 정부가 계획한 의약 관련 클러스터(헬스케어, 테라피 등)인 'Medicen Paris Region network'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바이오시테크에 입주한 여러 기업이 Medicen Projects에 참여하고 있음
- 6개 건물에서 28,250㎡의 오피스 및 연구소 임대공간이 제공되며, 현재 93%(23,200㎡)의 공간이 임대 완료된 상태이며 조성 후 5년 만인 2008년에 80%의 입주율 달성한 것으로 약 10년 후 40,000㎡의 공간을 추가하는 확장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바이오시테크는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분석 연구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5개 기업이 이를 활용 중임
- 일드 프랑스 지역에서 ICPE* 인증을 받은 유일한 테크노파크로, 입주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동물임상실험실(작은 설치류 등), L2, L3 밀폐 연구실(clean room)이 조성되어 있음
- ICPE 인증을 위해 바이오시테크와 입주기업은 규제 물질 양을 분류 및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바이오시테크는 입주기업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음
- 대표적인 예로 2012년 파리 37개 공립병원 네트워크인 AP-HP(Assistance Publique-Hopitaux de Paris)과 협약을 체결한 것인데 AP-HP에게는 인큐베이팅 기능을 제공하고, 바이오테크 입주기업들은 AP-HP의 기술이전 지원을 제공받는 내용의 협약임

- 구체적으로 AP-HP에서 제안된 프로젝트들이 바이오테크의 공간(클린룸 등)을 활용하거나, 바이오테크 입주기업들이 AP-HP의 기술적 혁신에 특별히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AP-HP는 2011년 한해에만 2,800개 이상의 임상연구(clinical trial)가 이루어지는 유럽 최대의 임상 연구센터이며 AP-HP가 바이오시테크와 협약을 체결한 가장 큰 이유는 젊은 생명과학 기업가들에게 적합한 연구환경과 인큐베이팅 기능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임

3. 주요 질의응답

- Q1. 바이오시테크는 바이오라는 특정산업 한 분야의 진흥을 목적으로 조성되었고 관리되어 오고 있는 것이 인상 깊었는데 이처럼 한 분야의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입주기업들에게 일반 집적지 이상의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특별한제도나 비결을 설명해준다면?
- A1. 앞서 설명한 인증제도나 협약 등을 꼽을 수 있음. ICPE인증을 받은 연구환경, AP-HP와의 협약을 통한 기술적 혁신의 특별 접근권, 인큐베이팅 기업에게 제공되는 2년간의 무상임대사무소 등이 생명과학 기업에게 매력적인 입주여건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Q2. 바이오라는 산업의 특성 상 R&D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한 특별한 제도적 지원이 있다면?
- A2. 앞서 말한 AP-HP와의 파트너십과 같은 산학연 연계 시스템을 꼽을 수 있음. 바이오시테크는 IRD(the French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파리 13대학(the University of Paris 13) 등과 협력하여 2011년 비영리기관인 Bondy Innovation association과 인큐베이터인 Bond'Innov를 설립하였음. Bond'Innov는 2년의 인큐베이팅 기간 동안 기업에게 사무기기가 구비된 공간을 무상임대해주며, 바이오시테크와 RID의 연구소 접근 권한 및 바이오시테크 입주기업 실무자로 부터의 조언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산학연 연계형 지원제도가 많은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입주요소로 꼽힌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Creative Valley 內 Station F 방문



<사진 3> Station F 방문 기념 촬영 장면

1. 기관개요

- 2017년 7월 1일 개관한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로 프랑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 추진 되었음
- 프랑스 정보통신 기업인 “Free”의 CEO인 자비에 니(Xavier Niel)이 사비 2.5억 유로를 투자한 것으로 유명함
- 개관식에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안 이달고 파리 시장 등 유력 인사가 참석하기도 했으며 3000여개에 이르는 스타트업 데스크, 회의실 60여 개, 콘퍼런스 홀과 제작실험실, 팝업 스토어 등이 마련되어 있음
- 공간당 매월 195유로를 내고 파리에 모인 전 세계 창업자는 각종 지원을 통해 성장을 꾀할 수 있어 미국의 실리콘 벨리에 버금가는 유럽 내 명소로 주목받고 있음

2. 발표내용

- 프랑스 스타트업 동향
 - 2009년 프랑스는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사회보장금을 경감시킨 1인기업 시스템을 도입해, 2010년에는 창업업체 수를 2배가량 증가시켰으며 지난 8년간 1인기업 창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제조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역량을 키워 해외로 나간 프랑스 기업들을 다시금 자국으로 불러들이거나 스타트업 등

신기술, 첨단기술 및 창의적인 기업 창업의 목표를 두고 2017년 10월 2일 'French Fab' 정책 (브뤼노 르메르 재경부 장관 공표)을 발표했다

- 이는 2014년 당시 중소기업·디지털 경제·혁신 장관이었던 플뢰르 펠르랭에 의해 시행된 프렌치 테크에 이어 친환경과 디지털화를 내세운 새로운 기업지원책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접견자 정보

- 이름 : Isabelle Morin
- 직위 : Project Manager
- 소속 : Entrepreneurship & International

<사진 4> 조사단 접견자 Isabelle Morin의 브리핑 장면

- Station F의 역할 및 기능

- Station F는 Free 통신회사 창립자이자 Illiad 그룹 회장인 자비에 니엘이 2억 5000만 유로를 투자해 설립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세계 최대의 공간으로, 2017년 6월 29일 파리 13구의 구 철도청 화물취급소를 리모델링해 탄생했음
- Station F는 1000여 개의 스타트업을 동시에 수용하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이자 액셀러레이터로, 비즈니스 센터 및 이벤트 공간을 동시에 갖춘 다양한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스타트업 캠퍼스라 호칭하고 있음
- 3000개 이상의 스타트업 작업 공간과 20개 이상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1000개의 스타트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또한, 전 세계 창업자들이 Station F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0분 거리에 창업자들을 위한 코리빙(Co-living) 거주 공간을 조성 중임



<사진 5> Station F 개관식 당시 마크롱 프랑스 現 대통령의 기념 축하 장면(출처 : 구글)

- Station F 내부는 셰어존(Share Zone), 크리에이트존(Create Zone), 칠존(Chill Zone) 등 세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음
- 크리에이트존은 스타트업만을 위한 공간으로 Station F는 이를 Station F의 중추 공간이라고 부르며 3천개의 작업 공간이 있고, 20개 이상의 글로벌 단위 스타트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 ☞ 페이스북, 젠데스크, 유비소프트, 네이버·라인과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제공하는 스타트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 크리에이트존은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으로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의 스타트업 개러지(Startup Garage), 프랑스 최대 인터넷 쇼핑업체 방트 프리베(vente-privee)의 임펄스(Impulse), 네이버의 스페이스 그린 등이 있음
- 칠존은 휴식과 식사를 위한 공간으로 카페테리아로 프랑스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레스토랑 ‘빅마마’가 들어올 예정이며, 이곳 식당은 일반인들도 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내내 사용할 수 있음
- Station F는 2018년 여름까지 600명을 수용할 공동 주거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3개 건물에 100개의 공동 거주 공간으로 이뤄질 숙소는 Station F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이브리 쉬흐 센느’에 지어지고 있으며, 2018년 완공되는 이곳은 약 600여명의 창업가들이 생활할 수 있음
- Station F는 스타트업을 하고 싶은 희망자가 자신의 프로젝트를 토대로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으며 20개 이상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 프로그램은 메디테크, 핀테크, 애드테크, 사이버보안, 증강 콘텐츠, 글로벌 스타트업, 초기 단계 스타트업 등 세분된 주제로 나뉘어 있으며, 많은 프로그램이 외부기업에 의해 진행되지만, Station F에서 진행되는 내부 프로그램도 있음
- 내부 프로그램은 ‘창업자들이 겪는 문제의 90% 정도가 다른 창업자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시작하였으며 멘토나 코치와는 다른 개념으로같은 입장에서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해보자는 데 의의를 두고 있음
- 현재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유비소프트 등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Station F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얼마 전 우리나라 기업 네이버와 라인도 Station F에 참여해 증강현실 콘텐츠에 초점을 맞춘 스타트업 프로그램인 스페이스 그린을 운영하고 있음
- Station F의 중심에는 프랑스의 스타트업 육성정책인 라 프렌치 테크(La French Tech)가 있는데 라 프렌치 테크는 2013년 프랑스 정부가 시작한 프랑스 스타트업 네트워크 프로젝트로 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예산 등을 지원해 프랑스 산업과 창업 생태계를 세계화하려는 프로젝트임
- 라 프렌치 테크는 최근 스타트업 창업자와 직원, 투자자들이 최대 4년까지 프랑스 거주와 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프렌치 테크 비자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Station F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프랑스는 Station F를 통해 세계 스타트업의 중심이 되고자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에 비해 기업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임. 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정부 차원에서 여전히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세계 창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프랑스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대적인 지원 정책을 통하여 Station F가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넘어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 단지로 거듭나는 것임



<사진 6> 조사단의 브리핑 청취 장면



<사진 7> Station F 시설 탐방 장면

3. 주요 질의응답

Q1. 입주기업에 대한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이 발표 때 있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준다면?

A1. Station F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는 파운더스 프로그램과 파이터스 프로그램이 있음. 파운더스 프로그램은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선발된 창업자는 월 195유로로 Station F 내 공간을 빌리며 Station F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음. 최소 1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선발할 예정이며 21개국 100개 기업이 선발위원회에 참여하여 선발할 예정임

이들은 창업자 네트워크와 특별 이벤트, 소프트웨어 사용권과 창업지원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의 철학은 스타트업들이 독립적이어야 하며 전담 멘토나 필참해야 하는 미팅이 없으며, 창업지원서비스나 전문가 자문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음. 파이터스 프로그램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초기 스타트업 창업자를 돕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출신, 학력 등 편견이나 특권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배제하고 선발함. 이 프로그램에 선발되면 1년 동안 Station F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이 밖에도 '펠로우십'은 스타트업 소속 국가나 단계에 상관없이 Station F를 이용할 수 있는 연간 멤버십 프로그램으로 연간 900유로(월간 75유로)를 내고 펠로우십에 등록하면 작업 공간, 이벤트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음

Q2. 수행기능의 성격 상 수익창출 모델을 찾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수익창출은 어떻게 하고있는지와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A2. Station F는 수익창출 보다는 프랑스 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진짜 목표임. 이는 프랑스 정부 차원의 의지이기도 하며 모든 재원은 자체적인 수익이 아니라 정부 지원과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마련되고 있음. 발표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프랑스 정부는 침체된 프랑스 경제를 견인할 원동력을 창업 활성화에서 찾았으며 단순히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미국의 실리콘 벨리를 넘어 유럽 전역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구현될 공간으로서 Station F를 조성했으며 이를 통해서 프랑스를 다시 한 번 전세계의 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만들자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음.

연간운영 비용의 경우 약 700~800만 유로 정도로 추산하고 있음

Q2. 프랑스 정부차원의 창업 집적지 육성 및 기업 지원 등의 의지가 매우 인상 깊는데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몇 가지만 들어 준다면?

A2. 크게 감세를 통한 경제적 지원과 대출지원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스타트업 기업 감세를 통한 경제적 지원은 혁신 신기업 규약(le statut de JeuneEntreprise Innovante, JEI)이 있는데 이 규약은 8년 미만의 회사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주의 사회 분담금과 기업세, 분담금, 자릿세, 자산세 같은 세금들을 면제해 주는 내용을 포하는 제도임.

대출 지원은 공공 투자은행(Banque Publique d'Investissement, BPI)에서 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2-3년 후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젊은 사업가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 도르트문트 창조경제 유럽센터(ECCE)



<사진 8> 도르트문트 창조경제 유럽센터(ECCE) 방문 기념 촬영 장면

1. 기관개요

- 도르트문트 창조경제 유럽센터 (the European Centre for Creative Economy/ECCE)는 ‘루르 2010’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을 담당하며,국지적·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지원 역할을 담당하였음
- 영상,게임,음악,문학,디자인,비주얼 아트,독립 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창조산업에 관한 비즈니스 지원과 연구개발 진행하고 있는 도르트문트 지역의 산업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루르 지역 일자리와 소득감소,인구감소는 물론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주거의 질이 악화되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위기에 봉착하였으나 주정부 등 공공의 주도하에 산업구조 재편과 일자리 창출, 친환경적 도시환경 개선을 목표로 시행한 ‘루르 2010’ 프로젝트의 상징과도 같은 기관임

2. 발표내용

- 도르트문트 루르지역의 산업 변화 과정
 - 독일 북부의 루르 지역(RuhrMetropolitanRegion)은 런던,파리에 이어 EU 지역에서 세 번째로 큰 광역도시권(도심 밀집지역)임

- 이 지역은 석탄과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세계 2차대전 후 독일 경제의 부흥을 상징하는 ‘라인강의 기적’을 일군 곳이며,1960년대 파독광부와 간호사가 첫발을 내디딘 지역으로 한국에게도 낯설지 않은 공간임
- 1960년대까지 유럽 최대의 공업지역이었던 루르 지역은 이후 석탄산업과 철강산업의 구조적 쇠퇴로 급격한 침체를 겪었으며 일자리와 소득감소,인구감소는 물론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주거의 질이 악화되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위기에 봉착하였음
- 이후 이 지역에서는 주정부 등 공공의 주도 하에 산업구조 재편과 일자리 창출,친환경적 도시환경 개선을 목표로 도시재생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옛 공업지역,운하시설,군사시설이 신산업단지,친환경 생태주거단지,문화복합시설 등으로 전환되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있으며,그 성공적인 변화의 과정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음
- 과거 루르 지역이 유럽 경제의 중심으로서 용광로와 공장굴뚝으로 상징되었다면 지금은 첨단산업과 녹색환경이 살아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공간 창출하고 있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변화임
- 주변 시설들이 철거되고 남아 있던 U 타워와 인근 5ha가량의 부지는 2007년 도르트문트 시로 이양된 후,2008년 ‘루르 2010-유럽문화수도3)’를 위한 사전 프로젝트로서 재건사업이 추진됨 이를 위해 시 공무원은 물론 각 분야 전문가와 기업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 시는 산업적·역사적 의미를 지닌 이 공장을 ‘역사적 기념물’로 지정·보존하는 노력도 함께함
- 이후 2010년 옛 맥주공장은 문화와 예술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인 ‘도르트문트 창조·아트 U센터’로 개관함
- 기존 외관은 유지하는 대신 건물 내부는 다양한 문화 이벤트 및 전시,예술 및 디자인 관련 교육 등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재정비하고 관련 분야의 다양한 기관과 시설을 입주시킴
- 사업 추진의 재원은 유럽연합과 주 정부,시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각 층별내부 인테리어는 입주기관들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유럽연합이 차원에서 1985년부터 문화 예술프로젝트로서 유럽문화수도 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1개의 유럽문화수도를 선정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2010년에는 루르 지역이 문화수도로 선정되기도 하였음



접견자 정보
 이름 : Bernd Fesel
 직위 : Senior Advisor

<사진 9> 조사단 접견자 Brand Fesel의 브리핑 장면

– 창조경제 유럽센터의 기능

- 창조경제 유럽센터는 루르 2010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을 담당하며, 국지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지원함
- 영상, 게임, 음악, 문학, 디자인, 비주얼 아트, 독립 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창조산업에 관한 비즈니스 지원과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루르 2010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문화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였고 투자금액은 약 5만 유로가량이며 그 결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음
- 처음에는 6개의 도시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현재는 14개의 도시로 확장되었으며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회사는 약 800여 개 업체임
- 문화수도로 기치로 기관이 출범했으며 문화적 콘텐츠를 가지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독일 문화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개인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음 지원자들의 수가 매우 많으며 이미 지원하는 사람

들이 100명이 넘는 수치를 보일 정도임

- 1년에 한 번씩 포럼을 진행하고 있고 유럽지역 예술, 경제 진흥 사업을 하는 유관기관과 사업을 공유하고 발전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 목표임
- 루르 지역은 함부르크, 베를린과 같은 대도시가 아니므로 1년에 한번 정도는 진흥활동을 개최해야만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는 것이 현실임
-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예술과 미래를 접목시키는 것들을 다루고 있고 유럽연합 관련된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는데 문화가 어떻게 지역경제를 살리고 사람들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임
- NRW 주와의 프로젝트는 디지털과 관련된 주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어서 여러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혁신과 관련된 단체와 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 혁신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혁신을 의미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나이스 어워드라는 상도 수여하고 있음
- 난민과 예술, 장애인과 예술을 주제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도 있고 구글 딥마인드와 같은 기업과도 지속적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영국, 네덜란드 등의 예술가 협회와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브뤼셀 등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데 최초 모임은 2011년부터 시작되었고 유럽 전역에 창조경제, 문화경제 등에 대해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음
- 기업차원에서 입지 및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는 크게 예술산업, 게임산업 등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며 주로 입지 자금지원, 연구과제 해결 지원, 입지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멘토링 그리고 타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 등을 하는 것이 대표적임



<사진 10> 조사단의 브리핑 청취 장면

3. 주요 질의내용

- Q1.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 콘텐츠 중심이 산업단지 육성 및 입지지원은 지역별로 특화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뤄짐. 예를 들면 경기도 부천의 경우는 만화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대표적인데 도르트문트는 문화예술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적으로 육성하는 문화예술 분야가 있는지?
- A1. 우리는 특정 문화콘텐츠의 육성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 중 미술, 회화, 퍼포먼스와 연관된 기업 및 개인을 지원하는데 그것은 ECCE의 선택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하면 됨.
- Q2. 과거 경쟁력 없는 공장지대가 탈바꿈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우 주인 없는 공장과 토지를 국가에서 사들여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곳의 경우는 정부에서 구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입주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것인지?
- A2. 두 경우가 모두 존재함. 국가에서 토지를 구매해서 입지를 지원한 경우도 있었고 소유주가 있는 경우는 소유주를 인정함을 전제로 재개발을 추진하였음. 단,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소유주에게 자체적인 역량으로 개발을 요구하거나 방치한 것이 아니라 ECCE가 소유주와 예술가들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서 새로운 산업 콘텐츠로 수익이 날 경우 광산의 소유주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소유주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였음

Q3. 도르트문트 지역은 기존산업 콘텐츠를 모두 없애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한 것이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예를 들어 지역산업의 근원이 탄광이라면 탄광관련 관광지를 개발하는 등의 방식인데 이곳은 기존 산업의 근원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산업지원만을 추구하는 것인지?

A3. 발표내용은 새로운 산업을 중점적으로 답변한 곳이며 당연히 기존의 광산 콘텐츠를 되살려 경제적 부가가치를 끌어내는 곳도 있음. 마지막 광산이 아직 하나 남아 있으며 마지막 광산이 폐광된 후에는 재단에서 광산을 깨끗이 청소 및 관리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한 후 지역 산업의 근원을 보존하면서도 해당 광산을 이용한 다양한 수익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을 추산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폐광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폐광관리 등의 업무를 맡겨서 지역 내 산업 재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업문제 등을 해결할 예정임.

Q4. 폐광 후 이 지역에서는 문화 콘텐츠 육성을 당초부터 생각하고 추진한 것인지 다른 산업육성을 하고자 했으나 그렇지 못해서 대안으로 문화 콘텐츠 육성을 시작한 것인지?

A4. 우선 ECCE는 문화적인 콘텐츠와 관련된 업무에 주력하고 있는 기관이며 다른 산업의 경우는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관리기관이 해당 분야의 육성을 전담하고 있음. 루르지역 전체적으로는 물류, IT, 소프트웨어, 에너지 등의 분야가 주력 산업이라고 보면 될 것



<사진 11> 조사단의 현장시설 탐방 장면



<사진 12> 조사단 단장과 접견자의 인사교류 장면

○ NRW州 경제개발공사 (NRW. INVEST)



<사진 13> NRW州 경제개발공사 방문 기념 촬영 장면

1. 기관개요

- NRW.INVEST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연방주정부 산하의 경제개발공사이며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RW) 연방주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함
- 전세계에 구축된 자회사 및 해외대표부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업들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거나 이들 기업이 NRW 연방주로 진출하는 과정에 필요한 입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현지 지역 내 입주한 19,000여 개의 기업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경제개발공사의 각 분야전문가들은 세제 및 법률관련 정보를 비롯하여 경제구조 및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기반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투자계획을 분석하고 필요한 입지를 제공하고 있음

2. 발표내용

- NRW 산업 현황 및 개요
 - NRW는 산업발달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인구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500km 반경 내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1억 6천만이며 이러한 입지조건 등에 의

해서 NRW주는 독일의 다른 연방 주에 비해서 GDP가 월등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NRW주의 다양한 산업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계산업이며 이어서 화학, 식품산업 순으로 산업이 발달해있음
- NRW주에는 큰 자동차 회사 본사는 입주해있지 않지만 그러한 자동차 회사들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다수 입주해있어서 주의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번째 이나 주정부 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분야임
- 이처럼 NRW주의 산업은 하나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고 볼 수 있음
- 한국과 비슷하게 NRW주 역시 큰 기업들이 시장을 끌어나가는 구조이나 NRW주는 75만 여 개의 중소기업이 경제 생태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독일 50대 업체 가운데 19개 가량이 NRW주에 위치해있으며 하나의 산업분야에 치중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산업 분야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 NRW주에는 4개의 큰 박람회장이 위치하고 있어 주내 위치한 여러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류하기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며 예를 들어 의료장비 박람회인 메디카, 플라스틱 합성수지 박람회 등이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며 이들은 해당 산업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박람회이며 이외에도 여러 박람회를 보기 위해 세계에서 매년 약 600만 명이 NRW주를 방문하고 있음
- NRW주의 수출은 유럽연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시아 지역이며 수입 역시 유럽연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을이어서 아시아 그 중에서도 중국산 제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음
- 가장 많은 무역을 하고 있는 국가는 네덜란드인데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리적 요건이 가장 큰 이유이고 두 번째 국가는 중국이며 그 다음으로는 일본이 위치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는 중국, 일본에 비해서는 무역거래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임
- 2015년 통계상으로 NRW주가 다른 연방주에 비해서 외국자본이 유입되는 비율이 가장 크며 이를 반영하듯 NRW주에 외국계 기업만 19,000여 개가 입주해있는데 800여개의 업체에 대한 설문결과 대다수의 업체들이 NRW주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만족스럽다고 답변했음

- 외국자본은 룩셈부르크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지만 룩셈부르크의 자본은 투자, 설비 등이 아니라 단순 금융자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투자, 설비 분야의 경우에는 네덜란드로부터 가장 많은 자본이 들어오고 있고 미국의 경우 자본의 유입은 적지만 규모가 큰 회사 3M, 아마존 등이 입주해있어 자연스럽게 투자 및 설비증가로 이어 지는데 기여하고 있음

<사진 14> 조사단 접견자 Wolfgang Jansen의 브리핑 장면

- NRW州的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 독일 NRW州는 연방정부의 「인더스트리(Industrie) 4.0」 전략과 기초를 같이 하는 주정부(경제, 에너지, 제조업, 미텔슈탄트 및 수공업부가 주무담당부서)의 「NRW 4.0」 전략을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독일은 보통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각 분야별 정책이 기초를 같이 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는 전체 국가전략과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주 정부가 세부적으로 실제 정책을 추진 및 운영하는 동시 전략 및 정책실행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
- 주 정부의 디지털화 철학 : 디지털화는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들 일상생활의 깊이 있는 모든 부분까지의 전환과정을 의미하므로, 이 과정은 전 분야에 걸쳐 장기간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루르 공업지대와 라인 강변에 접한 오스트베스트팔렌 일부 지역 역시 보유하고 있는

NRW州는 많은 변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 주 중 하나로서 NRW 주정부와 거주 주민들이 항상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도전을 목표로 삼고 이러한 도전을 항상 빠르고 선제적으로 받아들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해왔음

- 주 정부는 이미 수많은 분야에서 디지털화 전략들을 가동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5개 부분에 대한 핵심과제를 정책운영의 목표로 삼고 주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1. 경제 4.0 전략
2. 고용 4.0 전략(보다 좋은, 보다 공정한 노동 환경을 설계)
3. 디지털화 및 IT(정보보호 및 보완 관련 연구역량 강화)
4. 디지털 전환 관련 교육 강화
5. 행정 및 법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디지털화(법률 및 제도의 디지털 환경 구축)

- NRW州의 입지지원 제도

- NRW 경제개발공사는 경제거점으로서의 NRW연방주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공사의 각 분야 전문가들은 세제 및 법률관련 정보를 비롯하여 경제구조 및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기반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투자계획을 분석하고 필요한 입지를 제공하며 투자 프로젝트의 진행 시에는 그 첫 단계부터 최종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때까지 전 과정에 함께 동행하며 파트너 중개 및 각종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특히 NRW州 정부 차원에서는 R&D 등 지식산업 육성을 최우선으로 삼고해당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지식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왔음
- NRW州는 유럽에서 대학 및 연구기관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대학, 전문대학,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센터가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돼 있는데 63개의 기술센터 및 테크노파크, 55개의 대학 및 전문대학, 30개의 기술이전센터, 27개의 연구기관이 역량있는 R&D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음
- 이러한 산업 집적지들은 지역별로 전문 분야가 나뉘어 네트워크를 이루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생명과학과 연료전지 기술은 뒤셀도르프, 박테리아 유전자연구는 빌레펠트,

유전자연구는 본, 자동차공학과 정보학은 아헨, 의학기술은 보쿰과 아헨, 마이크로 엔지니어링 기술은 도르트문트에 연구소와 관련 기업들이 모여 있음

- 이들의 축적된 노하우와 지속적인 연구개발, 기술이전 등은 NRW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새로운 자원이 되고 있음
- 1960년대 이전에는 아헨, 본, 쾰른, 뮌스터에만 대학이 있었지만 지난 40년간 대학 및 전문대학이 크게 확대되었고 14개의 종합대학을 보유한 루르지역은 유럽 최대의 대학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최근에는 웹 기반의 GERMAN.SITE를 운영하여 스키마, 지형 지도, 인터랙티브 지도, 항공사진 등을 무료로 제공하여 입지조건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정보를 통해 주변 지역에 위치한 인프라 시설, 연구소, 대학, 클러스터 등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이 밖에도 GERMAN.SITE는 자치단체 및 지역 경제지원기관의 링크도 안내하고 있어, 해당 입지 관련 추가적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NRW州에 입지하는 기업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
- GERMAN.SITE 데이터들은 NRW 연방주의 자치단체와 지역 경제지원기관에 의해 수시로 업데이트 및 관리되고 있으며 정보완전공개를 전제로 해당 카테고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사진 15> 조사단의 브리핑 청취 장면

3. 주요 질의내용

Q1. 산업 집적지 육성을 위해서 다른 나라와도 많은 교류 협력을 맺고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한국과의 교류현황은 어떤지?

A1. 산업 집적지 육성을 위해서 한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소속된 한국산업단지공단과도 MOU를 체결한 바 있음 양국 중소기업의 강점을 중심으로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공동 프로그램으로 기업 간 정기적인 교류, 클러스터사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 교류의 필요성에 의해서 MOU를 체결했으며 기업간의 정기적인 교류로서는 수출입 교류회, 중장기적인 기술교류를 위해 기존에 양 기관이 각각 진행하고있는 만남의 장을 활용하고, 기업이 희망하는 교류방안을 추가 발굴하고 있음. 또한 R&D 분야에서도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음. 한국의 경기도와 주정부 차원의 협약을 맺고 NRW州의 아헨공대 그리고 한국 측의 성균관대와 협력하여 지능형 전자 섬유개발을 위한 한-독 연구소를 설립하여 이미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

Q2. 한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전방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NRW州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인상 깊었음. 앞선 발표에서 산업 집적지나 클러스터 입지를 위한 행정지원 시스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준다면?

A2. NRW州 정부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행정지원의 전면 디지털화 무료화임. 2015년 3월 새로운 열린정부-인터넷사이트 “www.open.nrw”를 개설하였으며, 해당 사이트에서는 현재 약 1,000여 개의 입지지원에 대한 공개 기록들이 모두 제공되고 있음.

해당 정보 이용은 무료이며, 체계적인 정보획득이 가능하며, 컴퓨터(입력장치)를 통해 정보획득이 이루어짐. 또한 전자 법률시스템 ERV 구축하여 입지지원에 관한 모든 법률과 판례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음. 이 시스템은 이미 독일의 다른 어느 주의 시스템보다 인기가 높아 매달 약 3천 3백만 명 이상이 사법부의 데이터베이스와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음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방문기관 별 시사점

- 바이오시테크 테크놀로지 파크

- 특정산업에 특화된 단지로서 조성 후 5년 만에 80%에 달하는 입주율을 달성했다는 점은 파리 외곽이라는 입지적 장점의 영향만이라고 보기 어려움
- 오히려 ICPE인증을 받은 연구환경, AP-HP와의 협약을 통한 기술적 혁신의 특별 접근권, 인큐베이팅 기업에게 제공되는 2년간의 무상임대 사무소 등이 생명과학 기업가들에게 매력적인 입주여건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특정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특히 생명과학과 같은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이와 같이 입주기업에 한해 부여되는 특별한 권한이나 서비스가 입주수요 확보에 중요하다 점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방문이었음

- Creative Valley 內 Station F

- Station F는 프랑스 정부차원의 창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곳으로 침체된 경기를 풀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대외적으로는 아이디어와 혁신을 중심으로 경제강국으로서 프랑스의 위상을 되찾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임
- 이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득분배 차원에서 한계에 다다른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우리정부 역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벤처 육성을 골자로 하는 혁신 창업 정책을 공표하고 시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투자유치, 입지수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Station F는 이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충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음
- 특히 특정 산업에 국한 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분야의 입주 기업의 수요를 총괄하여 반영할 수 있는 지원 제도는 창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시사하는 바가 큼

- 도르트문트 창조경제 유럽센터(ECCE)

-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 전략은 공간적 물리적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경제적으로는 벤처 등을 바탕으로 한 신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사회 문화적으로는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며,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르트문트 지역을 위시한 독일의 루르 지역은 노후 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도시의 쇠퇴한 경제기반 구조를 전환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큼
- 우리의 경우 노후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69.4%이며, 산업시설용지가 80%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단지도 많아 지원기능 공급을 위한 용지가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 할 때 노후 산업단지를 혁신 산업 분야가 자유롭게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롤 모델로서 도르트문트 지역에 대한 학습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 집적지 구성을 벗어나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다양화한 도르트문트의 사례는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큼

- NRW州 경제개발공사

- NRW州는 독일 지역을 넘어 유럽전체의 경제 중심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지원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특히 NRW州의 위상을 공고히 한 원인인 연구기관, 대학, 기업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조성은 기업들의 혁신을 이끌어 내고 산업의 고도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적 입지지원제도를 넘어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우리가 앞으로 구축해야 할 입지지원 제도의 방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향후계획(시정 활용계획)

- 특정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시 입주기업에 특별한 권한이나 서비스가 입주수요 확보에 중요한 바 이를 잘 활용

- 특정산업에 국한 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분야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지원제도 마련
- 노후 산단의 신성장 동력 발굴차원에서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 집적지 구성에서 벗어나 문화 콘텐츠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다양화한 사례처럼 시각의 다각화.
끝.